“코로나 시대 禪, ‘사회적 마음챙김’에 주목을”

오용석 HK연구교수, 〈선학〉 발표논문서 주장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현재 코로나19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자기를 중심으로 마음을 닦고 또 닦는 수행론이 아니라 철저한 연기법의 의미를 삶 속에서 실천하는 ‘사회적 마음챙김’이다.”

코로나19로 인한 우울감, 분노, 슬픔 등이 팽배한 현 상황을 선불교적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고찰한 연구 논문이 발표돼 눈길을 끈다. 유심론적 주관주의를 극복하고 연기법을 삶에서 실천할 수 있는 ‘사회적 마음챙김’이 현 시대의 선불교가 가질 방향이라는 것이다.

오용석 원광대 마음인문학연구소 HK연구교수는 한국선학회가 발행하는 학술지 〈선학〉에 발표한 논문 ‘코로나19 시대, 선불교는 어떠한 의미를 갖는가’를 통해 이 같이 주목했다.

오 연구교수는 현재의 코로나19를 비롯한 감염병들의 유행이 인간이 저질러온 환경파괴와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지적하고 이를 “나는 연결이고, 연결이 나”라는 김기봉의 주장을 인용하며 전문 학자들의 비판들이 불교의 연기론과 궤를 같이 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또한 이 같은 상호의존적 연결성이 선불교에서는 ‘법계(法界)’의 개념으로 설명된다는 게 오 연구교수의 설명이다.

그는 “인간의 감염은 다른 측면에서 모든 존재가 상호 연결돼 있음을 역설적으로 보여준다. 선불교적 관점에서 모든 존재는 법계의 상호관계성을 벗어나지 않고, 이러한 법계는 평상심을 통해 구체적이고 역동적인 모습으로 표상된다”면서 “법계는 무분절의 분절이며, 무매개적 전체이다. 코로나19 바이러스 역시 법계의 묘용을 벗어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참선 수행을 하는 수좌 스님들의 모습. 코로나19시대에는 유심론적 주관주의에서 벗어난 선 수행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대불교 자료사진

감염, 연결 등 禪의 관점서 고찰
퍼서의 ‘사회적마음챙김’도 주목
유심론적 주관주의 극복 제시해
“비이원적인 삶, 現시대에 필요”

그러면서 오 연구교수는 코로나19로 늘어난 우울, 분노 등의 감정을 치유하는 방법으로 선불교의 ‘안심법문’을 주목했다. 그는 “코로나19 등으로 겪고 있는 마음의 불안을 극복하는 데 필요한 것은 불안한 마음의 실체를 인정해 그것을 다스리기보다 자체가 실체가 없음을 통찰하는 것”이라면서 “선불교가 제시하는 안심법문은 행복연구나 인지심리학의 관점에서도 긍정하는 방식”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선불교에서 보여지는 유심론적 주관주의는 경계해야할 점이라고 오 연구교수는 주장했다. 오 연구교수는 “선불교가 법계의 상호의존성과 활발발한 구체적 일상 구현을 중시하는 것은 주관주의의 해체를 의미한다”면서 “선불교의 수증론이 주관주의를 극복할 때 관계 회복과 안심의 경지에 이르고 이를 통해 현재 코로나19로 인한 현상적 심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 연구교수는 주관주의 극복의 아이템으로 ‘사회적 마음챙김’을 제시했다. ‘사회적 마음챙김’은 현재 서구에서 유행하고 있는 ‘맥마인드풀니스’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로널드 퍼서가 저서 〈마음챙김의 배신〉에서 강조한 개념이다.

오 연구교수는 “선불교의 수증론이 갖는 특징은 깨침을 통해 주관주의를 극복하고 상호의존의 법계를 현실에서 구현하는 데 있다”면서 “사회적 마음챙김이 연기법에 대한 철저한 이해를 배경으로 유심론적 주관주의 극복을 독려한다는 점에서 선불교의 기본 정신과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로널드 퍼서는 ‘진정 혁명적인 마음챙김은 비원적’이라고 했다”면서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환경오염을 줄이는 등 비이원적인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선불교의 지향점”이라고 강조했다.

지역 불교문화 조명 학술대회들 ‘눈길’

순천대 남도硏, 10월 15일
‘백운산과 불교’ 학술대회
평택불교사암련, 10월 16일
평택역사문화로드 학술대회
삼척 안정사, 13일 설법전서
땅설법 조명 학술대회 개최

지역 불교문화와 무형유산들을 조명하기 위한 학술대회들이 잇달아 열린다. 이들 학술대회는 그간 학계에서 조명되지 못했던 불교 문화유산들을 조명한다는 데 의미가 크다.

순천대 남도문화연구소(소장 이욱)는 10월 15일 광양시 문화예술회관에서 ‘광양 백운산의 불교 문화’라는 주제로 학술세미나를 개최한다.

광양 백운산은 신라 말 도선 국사가 말년을 보냈던 옥룡사를 비롯해 근대에 이르기까지 많은 사찰들이 흥망성쇠를 거듭해 왔다. 〈동국여지승람〉과 〈광양읍지〉에는 옥룡사, 운암사, 송천사, 황룡사, 백운사, 개룡사, 성불사, 초천사 등의 사찰명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백운사만이 조선 시대로부터 지속적인 명맥을 유지해온 전통사찰로 지정됐고 다른 사찰은 현대에 새로 중창됐다. 그러다보니 백운산의 불교적 위상에 걸맞지 않게 백운산 불교에 대한 연구가 거의 이뤄지지 못했다.

이에 순천대 남도문화연구소는 백운산 불교의 역사적 위상과 문화적 가치를 재조명하기 위해 지난 1년간 역사 · 불서 · 불상 관련 전문가에 의뢰해 백운산 불교 연구를 진행했고, 백운산에서 비교적 이른 시기에 중창된 성불사의 전통사찰 지정 가능성도 함께 연구했다.

이날 학술대회는 그간 남도문화연구소가 연구해 온 연구 성과를 확인할 수 있는 자리이다. 이종수 순천대 사학과 교수는 ‘전근대 광양 백운산 불교의 역사’를, 박용진 국민대 교수는 ‘조선시대 백운산 간행 불서의 성격’을, 유근자 동국대 교수는 “백운산 소재 불상의 문화적 가치”를, 신선혜 호남대 교수는 ‘백운산 성불사의 전통사찰 등록 가능성’ 연구 논문을 각각 발표한다.

토론자로는 이계표 전남문화재위원, 홍영기 전남문화재위원(순천대 명예교수), 손성필 조선대 역사문화학과 교수가 참여할 예정이다.

학술세미나의 연구책임자인 이종수 교수는 “이번 학술세미나를 시작으로 백운산뿐만 아니라 광양 지역 불교문화에 관한 연구가 한층 발전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평택불교사암연합회(회장 적문, 수도사 주지)가 10월 16일 평택 수도사 원효대사깨달음체험관에서 개최하는 제1회 ‘평택 역사문화로드’ 학술대회는 혜초 · 원효 · 의상 스님의 구법 원력을 조명하기 위한 자리다.

이번 학술대회는 평택시민과 국민들이 찾는 평택호예술공원에 혜초 · 원효 · 의상 스님의 구법 열정을 예술조형물로 기념할 것을 제안하기 위해 열린다.

1부 개회식과 2부 학술발표로 나눠 진행되는 학술대회에는 평택과 구법승들의 구법 루트를 조명하는 연구논문들이 발표된다.

김경집 인천시 문화재전문위원(前 진각대 연구교수)은 ‘원효의 구법행로에 대한 연구’에서 평택이 중국 문화 유입의 관문임을 역사적으로 조명하고 이를 바탕으로 원효의 구법로를 고찰한다.

김규현 티베트문화연구소장은 ‘혜초의 〈왕오천축국전〉의 해로설(海路說)’을 통해 국내 학계에서는 조명되지 않았던 혜초 스님 해양 루트를 살피며, 박재용 동국대 불교대학원 겸임교수는 ‘심복사와 비로자나불- 부처가 바다에서 나온 까닭은’에서 원효가 입당을 단념하고 수도사 인근에서 수행한 이유가 비로자나불이 바다에서 나온 뜻과 같은 것은 아닌지를 대중에게 전한다.

동아시아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불교 속강인 땅설법을 조명하기 위한 학술대회도 열린다. **삼척 안정사**(주지 다여)는 10월 13일 경내 설법전에서 ‘안정사 땅설법을 통한 한국 속강 문화 복원’을 주제로 학술대회를 연다.

학술대회에는 김형근 전북대 무형유산정보연구소 연구교수가 ‘안정사 땅설법의 공연예술 양상과 창작연희로의 활용 모색’을, 허용호 한국예술종합학교 초빙교수가 ‘안정사 땅설법의 인형극과 그림자극 연구’를, 윤동환 전북대 무형유산정보연구소 연구교수가 ‘안정사 땅설법과 농악 농사풀이 연행양상 비교 연구’ 등을 각각 발표한다.

논문 발표 이후에는 함안희 무형문화연구원장, 김도현 문화재청 문화재전문위원, 반인수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가 ‘땅설법의 가치 확산’를 주제로 한 아이디어 제언이 이뤄지며, 땅설법 법주 다여 스님과 안정사 신도들이 참여하는 오픈 토크 콘서트도 진행될 예정이다.

책임연구자 윤동환 연구교수는 “삼척 안정사 땅설법은 삼척과 한국을 넘어 세계적인 무형문화유산으로서도 가치가 있으며, 특정 종교의 한정된 문화가 아닌, 한국의 전통예술로서도 그 보편성을 담지하고 있다”면서 “지자체와 관련 기관의 지속적 전승 지원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동국대 부디스트 비즈니스학과 신입생 모집

10월 18~25일 일반전형 접수…조계종 스님 학비 65% 감면

불교학과 경영학, 미디어커뮤니케이션을 융섭해 배울 수 있는 동국대 대학원 부디스트 비즈니스학과가 내년도 신입생을 모집한다.

동국대 불교학술원(원장 불영 자광)은 “‘부디스트 비즈니스학과’가 일반전형으로 2022년 1학기 신입생을 모집한다”고 10월 7일 밝혔다.

일반대학원 정규과정인 부디스트 비즈니스학과는 불교학과, 경영학과,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가 참여하는 협동과정으로 해당 과정을 이수하면 사회학 석사와 박사 학위를 받는다.

부디스트 비즈니스 학과 2022년 1학기 일반전형 모집의 원서 접수는 10월 18일~25일까지 인터넷(www.uwayapply.com)에서 할 수 있다. 석사 과정은 4년제 대학 졸업자이고, 박사 과정은 석사 학위 이상 취득자여야 한다. 석 · 박사 통합 과정은 4년제 대학 졸업자로 석사과정 지원 자격에 준하며, 타 대학원 재학자의 편입학도 가능하다. 조계종 스님은 정규학기 수업료의 65%를 감면하는 ‘건학이념 구현 장학금’의 혜택이 있다.

불교 교단에 필요한 경영 능력과 일반사회에서 요구하는 인간 중심의 경영철학을 겸비한 경영전문가 양성을 목표로 하는 부디스트 비즈니스 학과의 교육과정은 이론적 차원에만 머무르지 않고 현장에서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 실무 능력을 강조한다.

강사진으로는 불교, 경영, 미디어커뮤니케이션 전문가들이 대거 참여한다. 불교학 분야에서는 김종욱(불교철학) · 신성현(계율학) · 허남결(불교응용윤리학) · 이자랑(불교교단사) · 조기룡(종무행정과 사찰경영) 교수가, 경영학 분야에서는 김승용(조직행위) · 정구혁(인적자원관리) 교수가 참여한다.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 분야에서는 김관규(방송과 인터넷 커뮤니케이션) · 김용환(디지털/소셜미디어) 교수가 교수진으로 이름을 올렸다.

부디스트 비즈니스학과 관계자는 “종단의 소임을 맡은 스님과 불자 경영자나 활동가들뿐 아니라, 불교학적인 관점에서 경영과 소통 철학을 배우고자 하는 타 종교인도 입학이 가능하다”면서 “특히 종립대학의 불교 최고위 과정이나 사찰경영 전문 CEO 과정을 수료한 후 보다 전문적인 교육을 원하는 스님과 불자들에게는 더없이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향후 대면강의가 가능해지면 불교교단의 종무행정과 사찰경영에 필요한 현안을 고민하고 그에 따른 대안을 찾는 불교정책 스터디를 전용 공간인 부디스트 비즈니스 컨설팅 룸에서 주임교수(조기룡)의 주관으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신성민 기자

